

좋은 독자, 글쓰기의 늪을 함께 건너는 동반자

나는 글쓰기가 늘 어렵다. 어려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외로움이다. 글 쓰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혼자임을 전제로 한다. 아무도 대신 써 주지 않는다.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목소리로 내가 직접 말해야 한다. 글을 쓸 때 나는 늪에 두 발이 잠긴 채로 혼자서 느릿느릿 걸어가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늪을 세 번 정도 건너야 글은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늪은 너무 깊어서,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렵고 힘들어진 다. 그럴 때 나를 붙잡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글을 쓸 때마다 기꺼이 함께 해 주는 나의 독자들이다. 대충 읽고 넘겨도 큰 상관이 없을 법도 한데, 이들은 마치 자기 글인 것처럼 내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들과 소통하며 글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 맛에 글을 쓰는 거였지!’라고 새삼 깨닫는다. 쓰는 동안에는 괴롭지만, 이처럼 좋은 사람들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기에 또 글을 쓰게 되는 것이다. 글쓰기교실에서 학생들의 글을 읽을 때 나는 나에게 힘을 주는 세 명의 독자들을 자주 떠올린다. 그리고 나도 이들과처럼 좋은 독자가 되겠노라는 다짐을 되새기곤 한다.

세 명의 독자 중 Y와 J는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친구들이다. ‘이번 글은 망한 것 같다’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는 Y에게 도움을 청한다. 부드러운 성품의 그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끝까지 미소 지으며 들어준다. 혼자 있을 때 엉켜 있던 생각의 실타래는, Y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형태가 되면 그제야 풀릴 조짐을 보인다. 이야기를 들으며 Y는 내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나만의 새로운 생각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뭉툭했던 나의 문제 의식은 Y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한층 예리하게 다듬어진다. Y와 나누었던 대화 속 아이디어 한 문장에서 내 글은 출발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이디어가 글 전체를 지탱하게 된다.

한편 J는, 혼자 글을 쓸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의 허점을 짚어준다. 기분에 따라 자주 극단으로 치우치는 나와 달리 J는 침착하고 현명하다. J의 지적은 날카로우면서도 늘 다정하게 느껴진다. 그가 내게 자주 하는 이야기는 “A가 아니라고 해서 꼭 B일까?”

● ● ●
김 윤 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상담 연구원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들을 때면, 다채롭게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을 내가 이분법적으로만 파악한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또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러저러 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구상도, 글로 쓰여 다른 이가 읽을 때는 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J의 조언을 받아 문장과 문장 사이에 부연설명을 하고,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문단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글을 조립하다 보면 내 글은 점차 열개를 갖추어간다. J는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다. 내가 쓴 글이 별로인 것 같아 의기소침해졌을 때 그가 건네주었던 격려하는 시간이 흘러도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그때의 뿌듯함은 내가 계속해서 글을 쓰게 하는 힘이다.

또 다른 독자 M은 나와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내 글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M이 보내주는 관심과 성원이 고맙고 반가워서 나는 전공에 관한 글도 M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려 노력한다. 호기심이 많은 M은 글을 읽고 난 뒤 다양한 질문을 쏟아낸다. M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나는 내 글을 읽고 독자들이 느낄 찝찝함에 미리 대응해볼 수 있다. M과의 대화는, 독자의 의문점을 풀어주는 개운한 글을 지향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글을 마무리할 때도 나는 M의 도움을 받는다. M은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길고 중언부언하는 문장 앞에서는 냉철하다. M의 조언을 거치고 나면 문장은 먼지를 떨어진 듯 깔끔해진다. M은 항상 내 글을 소리 내어 읽는다. M이 읽는 내 글을 들으면 부끄럽기도 하다. 내가 쓴 문장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수식어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버리기엔 미련이 남아서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지 못한 탓이다. 소리 내어 읽으면 표현상의 문제점을 훨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M의 목소리를 들으며 절감한다. 때때로 M은 “특정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독자가 단조롭다고 느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어때?”라며 다양한 표현방식을 제안한다. M과 함께 표현을 고르는 것은 재미난 놀이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글쓰기로 인한 압박감을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다.

Y와 J, M의 조언을 들으면 나도 이들과처럼 좋은 독자가 되고 싶어진다. 바쁜 중에도 흔쾌히 내 글을 섬세하게 읽어주는 그들을 보며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독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좋은 독자들을 만나는 경험은 나 자신이 독자의 위치에 서게 될 때도 든든한 길잡이가 된다. 글쓰기교실을 찾아온 학생들과 리포트 상담을 진행할 때, Y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는 글쓴이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J의 예리함을 떠올리면서 나 또한 문맥을 침착하게 들여다보고자 하고, M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를 생각하며 리포트를 더욱 꼼꼼히 살피려 한다.

나에게 글쓰기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좋은 독자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말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마주하

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글이다. 그래서인지 글쓰기와 독자의 소통은 글이 완성되고 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나는 글을 완성해가는 여정 중에도 독자와 만나는 즐거움을 꼭 누리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때 이루어지는 좋은 독자와의 대화는, 어쩌면 완성된 글보다도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러나 글쓰기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내 글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내 부족함을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글의 공개를 망설이는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글을 보여주면 어떨까. 언젠가 좋은 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CTL 글쓰기교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환영이다. 내 글을 열심히 읽어주는 누군가와 함께라면, 글쓰기 과정에서 늪을 만나더라도 한걸음 즐겁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신입생의 즐거운 대학생활

– 첫 학업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박 알 뜨 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상담실 상담원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갖는 일 혹은 잊고 싶은 기억이 있다.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첫 학업에 큰 실패를 많이 겪어보지 못한 서울대 신입생들에게는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는 것은 큰 시련이며 잊고 싶은 끔찍한 기억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만약 대학 첫 학기에 기대한 만큼의 시험 성적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는 혼자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좌절과 자책의 밤을 보낼 것이고, 누군가는 동기 혹은 선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분석하여 다음 시험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겪을수록 낯설고 두렵고 무섭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우리는 실패가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실패가 덜 두렵기를 바랄 뿐이다.

A는 대학에 들어와서 첫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성적을 받고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만 합격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살았다. 그런 A는 대학에 입학한 뒤에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경험들을 시도해보고, 동아리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시험공부에 충분히 매진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 결과 A는 중간고사 시험에서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A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높은 성적을 받은 것만 같고, 나만 뒤떨어진 것 같은 위축감이 들었고, 누군가 자신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이런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A는 자신의 성적을 감추게 되었고, 속으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금만 노력해도 웬만큼 성적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대학에 오니 나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열심히 해도 그 친구들한테 비교도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A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점점 학과 공부에 흥미를 잃어갔다.